

看護教育制度를 진단한다

現行教育制度는 바람직한가

————의학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권 이 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자신은 없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문의한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다만 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처지이고 의학교육과 간호교육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 등업자와 같은 불가분한 기분에서 몇가지 생각하는 것을 적어 보려는 것이다.

간호교육

간호학을 모르는 처지에서 간호교육제도를 말한다는 자체가 썩스러운 일이다. 그런줄 알면서도 굳이 무견을 적으려는 것은 의학과 간호학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때는 간호교육에 책임도 저본 일이 있었던 관계로 내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느낀 까닭이다.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에는 간호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가 의과대학에 속해있다. 한때 필자 자신이 의과대학의 학장직을 맡아본 일이 있었으므로 어쩔곳이나마 간호교육에 대해서 아는척하기도 한 일이 있다.

그렇다고 간호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쓸

우리 나라 간호교육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광의의 간호교육이 간호학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간호교육과 간호학 교육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후자는 간호학과나 간호대학 즉 4년제 정규대학과정 및 대학원과정 교육을 뜻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제외한 교육을 간호교육이라고 규정해보자. 물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편의상의 규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된 것은 1900년으로 알려져 있다. 1910년에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에서 1명의 졸업

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당시의 양성소는 4년제 교육기관이었으며 간호기술과 더불어 조산기술을 교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성소의 수가 절증하여 1930년에는 17개가 있었으며 1932년에는 면허받은 산파수가 1,406명이었고 간호부가 1,446명이었다.

이 무렵에 간호교육 규정이 제정되어 입학자격을 최저 중학 3년졸업자로 하는 3년제 고등간호학교로 통일되었으며 졸업후에 정해진 실습을 마치면 간호원과 조산원의 자격을 겸하게 하였다.

해방후인 1946년에는 16개의 고등간호학교가 있었는데 1957년을 전후해서 고등간호학교가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편되었다. 1962년에는 전국에 있던 23개의 간호고등기술학교중 19개교가 초급대학령에 준한 인가를 받아 간호학교로 승격되었다. 간호학교 입학자격기준은 최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3개대학교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탄생하였고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와 이화대학교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전국에는 4년제 간호학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이 14개교이다.

1970년에는 대부분의 간호학교가 3년제 간호전문학교로 개편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간호학교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간호교육제도의 변화에는 무상한 것이 있었는데 이에따르는 문제점도 그만큼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간호보조원을 양성하기 위한 학원도 허다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간호교육제도상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도가 변화하게 마련인데 어느 경우에서나 신중한 검토와 성정한 판단이 앞서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간호학 교육

간호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가 있다. 국립대학에서는 간호학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많은 사립대학에서는 간호대학으로 독립되어 있다.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 문제

가 주된 것이 아니고 간호학을 교육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간호학이 체계화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간호학은 분자 과학의 학문이다. 전문분야의 경우 기술과 학문이 분리되어 고찰되기는 힘들며 양자사이의 차이를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학문과 기술은 엄연하게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기술을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말해서 간호학은 간호라는 기술과 더불어 이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간호」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길지만 「간호학」의 역사가 길지못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가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학이나 학문을 교수하는 장소가 대학이고 보면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가 지니고 있는 사명에는 대단히 큰 것이 있다고 해야겠다.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제야무리 학문이라고 하지만 전문분야의 경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과의 관계를 짚을 수 없다. 간호학은 기술과 과학을 함께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쨌든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최고의 전당이다. 대학의 기능이 교육·연구·봉사로 집약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에서는 이 세가지가 항상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필 필요가 있다.

결자의 견해로는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 출신은 간호계나 간호학계의 지도자가 되는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의 존재이유가 모호해진다. 간호학과나 간호대학의 모든 졸업생이 간호학계에서나 간호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호학사의 대량배출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는 숫자는 극한되어 있으며 누구누구가 제한없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모든 간호원을 학사출신으로 할 목적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이며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 무리한 주문이다.

양산을 억제한다는 의견이 마치 간호학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간호학을 발전시키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간호학사학위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해야 한다. 숫자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 바라고 있는 결과가 기대되기 힘들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 일이다.

한가지 솔직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간호학이 학문으로서 체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론면에 있어서나 학술면에 있어서 완벽한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는 사실인데 대학원 교육을 예로 든다면 간호학 석사학위 과정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간호학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나라에 간호학 박사과정이 최근 설치되어 아직 학위소유자가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보스턴」 대학 이외에는 이러한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필자의 파문의 탓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한 인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과정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에 만족할 수 만한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문제해결의 첩경은 간호학을 보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의 교육제도와 직결되는 과제라고 사료된다.

제도와 문제점

어느 분야 어느 제도에 있어서나 적절 조건에 문제점은 따르게 마련이다. 우선 간호교육기관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황을 살펴본다.

1976년 12월 현재 전국 간호교육기관(광의의 교육기관을 뜻하지만 보조원학원은 제외)을 보면 전국에 52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중 14개가 대학과정에 속한다.

재학생과 졸업생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제 1 표 및 제 2 표에서와 같이 재학생에 있어서는 대학과정생이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생중 미취업자가 29.1%를 차지하고 있다.¹⁾

한편 보건사회부가 1977년 8월현재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간호원 총면허자수는 26,904명인데 이중 취업자가 31% 미취업자가 36%, 해외이주자가 29%이다.

제 1 표 재학생현황(1976년)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대학과정	776	781	729	619	2,895(26.4%)
전문학교	2,663	2,542	2,385	—	7,590(69.2%)
간호학교	150	152	182	—	484(4.4%)
계	3,579	3,475	3,296	619	10,969(100.0%)

자료: 대한간호협회 교육부; 1976년도 간호교육 실태조사

제 2 표 졸업생 취업현황(1976년)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계	
	No.	%	No.	%	No.	%
대학과정	494	84.9	88	15.1	582	100.0
전문학교	1,447	65.9	749	34.1	2,196	100.0
간호학교	168	85.3	29	14.7	197	100.0
계	2,109	70.9	866	29.1	2,975	100.0

자료: 제 1 표와 같음.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은 배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간호교육제도에 관련된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본다.

1. 교육목적의 설정

어느 분야의 교육에 있어서나 목적의 설정을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확실한 목적의 설정없이 교육이 실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다.

첫째, 학교전체의 목적

둘째, 교실의 목적

셋째, 과목의 목적

학교 전체의 목적이 일반목적이라던 교실이나 과목의 목적은 세부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정이 있고 전문학교가 있는것이 사실이고 보면 양자간의 목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대학의 목적이나 전문학교의 목적이 동일할 수는 없다. 양자의 목적에 있어서 보다

뚜렷한 것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주문이다. 또한 교실의 목적이나 과목의 목적이 명료하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여지가 허다하다고 본다. 의학교육에 있어서도 이 사정은 비슷하다.

2. 교과과정

목적이 설정되면 이에 따라서 교과과정이 편성된다. 현재 대학과정과 전문학교의 교과과정 사이에는 대학과정의 경우에 일반교양과정이 1년간 교수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면허취득과 취업후의 양상

간호원은 국가고시 응시자격에 있어서 전문학교 졸업자와 대학과정 졸업자 사이에 차이가 없고 고시를 거치면 동등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같은 면허를 취득한 자가 취업할 때에는 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데 승진시에는 전문학교 출신이 뒤지게 되어 불만과 반복이 파생한다.

4. 인력수급 계획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더우기 해외진출의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인력수급계획에 따르는 교육이 바람직하다.

맺는 말

간호교육제도에 따르는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간호전문학교와 대학과정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늘 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이러한 사정은 특히 간호교육이나 의학교육에서 뚜렷하다. 간호교육이 간호대학이나 간호전문학교를 위한 교육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시정이 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넓은 의미의 간호교육은 간호보조원에 대한 교육이나 졸업생에 대한 연수교육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고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와 합리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

참고 문헌

1. 대한간호협회 교육부 : 1976년도 간호교육 실태, 대한간호, 87 : 66~67, 1977
2. Gault, N. L.: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Planning, Proceedings of the 1st National Medical Education Seminar. p.242, 1971

